

인천공항 고도화 위한 5G망 확충, LG CNS 이통3사 제치고 낙찰



LG CNS 마곡사옥 전경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 스마트공항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5G 특화망 확대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LG CNS(LG씨엔에스)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제쳤다.

2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 6월 '인천공항 5G 특화망 구축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달 16일 개찰을 통해 LG CNS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LG CNS는 이번 사업에 함께 입찰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를 제치고 선정됐다.

LG CNS는 이번 사업에 82억3130만원을 적어내 낙찰을 받았다. LG CNS는 입찰가격 점수가 20점으로 SK텔레콤(19.59점) KT(19.75점) LG유플러스(19.99점)를 제친 것은 물론이고 기술평가 점수도 80점으로 SK텔레콤(75.80점) KT(75.14점) LG유플러스(71.13점) 등을 앞섰다.

이번 사업은 안내·수속·순찰 등 공항에서 운영하는 다기종 로봇과 지능형 CCTV(폐쇄회로TV) 및 자율형 주행 서비스 등을 통해 인천공항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G망을 확대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공항은 지난달 LG CN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이달 계약을 정식 체결한다. 실제 5G망 확대 구축은 15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운영 및 유지관리 기간은 36개월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INF컨설팅-LG CNS, 디지털자산 사업 협력 MOU



중앙의 왼쪽이 INF컨설팅 백만용 대표이사 / 오른쪽이 LG CNS 김홍근 부사장. (사진 제공=INF컨설팅)

INF컨설팅과 AX 전문기업 LG CNS가 지난 25일 디지털자산 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마곡에 위치한 LG CNS 본사에서 INF컨설팅, LG CNS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양사는 '디지털자산 기반 고객 서비스 차별화'에 뜻을 모으고 관련 사업기회 전반에 걸쳐 상호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 개척, 디지털자산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고객사 대상 공동 마케팅 등 세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추진한다.

협력의 첫 단계로 INF컨설팅의 증권 등 금융업 네트워크와 LG CNS의 블록체인 컨소시엄 참여 경험을 활용하여 시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디지털자산의 등장으로 현재까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은 금융업으로,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사들에게 있어 디지털자산은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자산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시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응해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금융 산업 내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를 공동 발굴하고 디지털자산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공동 구축한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권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스테이블 코인 및 토큰증권 발행·유통 시스템 등 현행 법·제도 하에서 가능한 사업 기회를 대상으로 양사의 강점을 살려 비즈니스 기획 단계부터 상호 협력하여 차별화 포인트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공동 마케팅 등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협력 활동도 해 나갈 전망이다. 양사 공동의 세미나 추진이나 외부 컨퍼런스 참가 등 공동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 기회를 가진 고객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내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백만용 INF컨설팅 대표는 "INF컨설팅은 토큰증권을 비롯한 증권업 내 신규 비즈니스에 독보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시장 내 차별성을 가져가고 있다"며, "국내 1위 토큰증권 기업인 INF컨설팅과 국내 1위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LG CNS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아름 인턴기자 han.areum2@joongang.co.kr

아드리엘-LG CNS, AI·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고도화 협력



(왼쪽부터) LG CNS 박상균 전무, 아드리엘 엄수원 대표. [사진=아드리엘]

[테크월드뉴스=양승갑 기자] 아드리엘이 AX 전문기업 LG CNS와 디지털 마케팅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디지털 마케팅 환경 속에서, 양사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결합해 차별화된 마케팅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아드리엘은 광고 데이터의 수집, 통합, 분석부터 AI 기반 인사이트 제공까지 마케팅 전 주기를 자동화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이키, 삼성, 퍼블리시스그룹 등 국내외 우수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멀티채널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보다 많은 대기업,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에 확산시키고 LG CNS의 AI 기반 분석과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을 아드리엘 제품에 접목해 성능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아드리엘 MI 플랫폼 고객(연간 누적 광고비 약 1500억원 이상 추정)을 대상으로, LG CNS의 생성형 AI 기반 이미지 생성 플랫폼 'COP'을 결합한 상품을 제공해 광고 배너 제작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북미·유럽·일본 등지의 해외 광고 시장을 타깃으로 공동 서비스 론칭, 현지화 전략, 교육 및 기술 지원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확장 전략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별 특성과 고객 니즈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캠페인 운영, 성과 분석 등 통합형 마케팅 서비스를 공동 기획함으로써 고객사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엄수원 아드리엘 대표는 "이번 협약은 아드리엘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기술 혁신과 글로벌 확장의 본격적인 시발점"이라며 "양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공동 연구개발(R&D), 기술 및 인력 교류, 신규 산업 분야 진출 등 다양한 실행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T, 국내 최초 AI-RAN 상용 검증

실시간 트래픽 패턴 파악
무선 최적화·6G시대 대응

KT는 상용 5G 네트워크에서 인공지능 기반 무선접속망(AI-RAN) 기술 검증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AI-RAN은 기지국과 네트워크 서버의 사이에 오가는 트래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차세대 통신망 기술이다.

AI-RAN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은 전용 AI 엔진이 실시간으로 전파 상태와 트래픽 패턴을 파악해 무선 자원을 최적화한다.

이번 검증은 노키아의 최신 5G 기지국 장비에 내장된 AI 전용 프로세서를 활용해 전남 나주 지역에서 진행한다. KT는 검증 결과를 토대로 AI-RAN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용 5G 망에 AI-RAN을 구현하는 사례는 KT가 국내 최초다.

AI-RAN은 6G 시대의 필수 기술로 꼽히며 이번 5G 기반 AI-RAN 검증은 이를 위해 필수 선행 단계다. KT는 상용망에서 AI-RAN 기술을 최적화 및 고도화하고 이후 6G에서 요구될 기술 사양과 운용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KT가 상용망에 도입하는 주요 AI-



KT 직원이 AI-RAN 검증을 하고 있다.

KT 제공

RAN기능은 '머신러닝 기반 채널 추정' 기능과 '머신러닝 기반 MU·MIMO' 동작이다. 무선 통신은 기지국 전파가 단말에 도달하는 과정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고 전송하는지에 따라 품질이 달라진다.

AI 모델은 복잡한 전파 패턴을 학습해 무선 환경에 따른 전파 세기의 변화를 정밀하게 추정한다. 그 결과 데이터 손실과 지연을 줄여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확보해 동일 주파수로도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한다.

머신러닝 기반 MU·MIMO 동작은 하나의 주파수·시간 자원으로 여러 이용자에게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하면 기지국이 같은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늘어나 전체 처리 용량이 커지고, 이용자는 더 빠른 속도와 우수한 품질을 체험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실전형 AI 인재로 산업 AX 견인

SK AX, 텔런트 랩·상생 아카데미 등 훈련 프로그램 운영

SK AX가 사내 실전형 인공지능 전환(AI) 인재 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산업 전반에 'AI로 일하는 방식'을 확산한다. '인공지능(AI)으로 일하는 사람'을 넘어 'AI와 함께 일하는 산업' 실현 차원이다.

SK AX는 올해 사명 변경을 계기로 전사 모든 업무에 AI를 기본값으로 적용하는 'AI 디폴트 컴퍼니'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과제 초기 단계부터 AI 도입 가능성을 검토, 실행단계에서 사람이 방향을 설정하고 AI가 수행하는 구조다.

이런 변화의 중심은 SK AX 독자 실전형 인재 양성체계 'AI 텔런트 랩'이다. 랩은 구성원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스스로 업무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를 설계·구현할 수 있게 설계된 실전형 훈련 플랫폼이다. 비개발자의 AI 모델 개발과 비즈니스 문제해결에 AI 직접 적용을 목표로 한다.

SK AX는 자체 'AI 리더십 인증 체계'를 구축, AI 활용 능력을 실질적으로 측정하고 내재화하고 있다. 이후 AI 부트캠프와 AI 마스터 프로젝트 과정에서 비개발자도 완결된 AI 에이전트를 구현하고 협업 환경에서 실전 AI 프로젝



SK AX가 실전형 AI 인재양성으로 산업 전반에 'AI 실행 생태계'를 확산한다.

트를 선도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하며 멘토링도 지원한다.

이러한 AI 인재 양성 체계를 SK AX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 전체로 전파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와 청년 구직자 대상한 실전형 AI 교육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의 대표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됐다. 청년 구직자 취업률 88%의 K디지털 훈련 프로그램 '스칼라'도 운영한다.

김민환 SK AX 텔런트담당은 "AI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써야 한다"며 "SK AX는 구성원과 고객이 함께 실전형 AI 역량을 갖추는 철학 아래 산업 전반에 걸쳐 AI 실행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내년 국내기업 85% 생성형AI 활용 전망”

**메가존클라우드, 749곳 설문
대기업 사용률 中企보다 2배 ↑**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2026년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AI를 전사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투자 대비 효과(ROI) 불확실성 우려가 도입 단계 기업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파운드리(구 IDG)와 함께 국내 기업 AI·IT 담당자 7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55.7%가 이미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사적 도입은 22.4%, 일부 부서 활용은 33.2%였다. 현재 구현 중이거나 1~2년 내 도입을 계획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2026년에는 85%를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전사적 활용률이 35.1%로 중소·중견기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응답 기업의 60.3%는 생성형 AI를 IT 전략에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평가했고 74.0%는 지난해보다 투자를 늘렸다고 답했다. 특히 우선순위를 높게 둔 기업일수록 투자 확대 비중

도 컸다.

우려도 컸다. 가장 큰 우려 요인은 ‘잘못된 정보 생성과 결과 신뢰도 부족’(61.3%)이었으며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53.3%)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 및 법적 책임 문제’(21.0%), ‘ROI 불확실성’(19.8%)도 지적됐다.

도입 장애 요인으로는 ‘기술 인력과 역량 부족’이 49.8%로 절반에 달했고 ‘인프라 및 데이터 확보 어려움’(32.0%), ‘경영진의 지원 부족’(21.0%)이 뒤를 이었다. 성공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경영진의 전략적 의지와 리더십’(41.1%)이 가장 많이 꼽혔다. 도입 방식은 챗GPT, MS 코파일럿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형 생성형 AI 서비스가 35.5%로 가장 높았다.

예산 전망도 확대 흐름을 보였다. 2026년 생성형 AI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79.3%였으며, 이 가운데 20~49% 증가가 26.8%, 50% 이상 증액은 37.2%에 달했다.

활용 목적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70.5%)이 가장 많았고, 주요 활용 부서는 소프트웨어 개발(44.1%), IT 운영(40.3%), 마케팅·고객 서비스·연구개발 순이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네이버, AI 브라우저 판 흔든다

네이버가 인공지능(AI) 브라우저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방대한 데이터와 직관적인 사용자환경(UI)을 갖춘 브라우저가 AI 에이전트를 구현할 도구로 주목받으면서 기술 개발에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내 AI 브라우저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웨일에 AI 에이전트 접목 추진
R&D 수행·개발자 채용 분주
글로벌 점유율 판도 변화 주목**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내부적으로 AI 브라우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AI 브라우저에 AI 시스템을 접목하는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개발자도 채용 중이다. 이르면 연내 AI 브라우저의 콘셉트 등에 대해 공개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올해 2분기 '브라우저 기반 AI 에이전트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연구'와 '브라우저 기반 온디바이스 AI 기술 개발 및 연구' 과제를 시작했다. 웨일 브라우저에서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제공하고,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연산이 가능한 온디바이스 AI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네이버는 다음 달 2일까지 '웨일 AI 브라우저 프론트엔드 경력 개발자'를 모집한다. 웨일 AI 서비스 관련 사용자의 UI를 구현하고 웨일 브라우저에 포함된 확장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AI 에이전트를 구현할 도구로 브라우저가 주목받으면서 네이버도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올해 초 네이버클라우드에서 네이버 본사로 네이버 웨일 조직을 재배치했다. 최근 퍼플렉시티,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이 AI 브라우저를 공개하거나 개발하는 등 계획을 밝히고 있다. 네이버 또한 본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AI와 브라우저를 접목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AI 브라우저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브라우저 시장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 AI 에이전트를 실현할 핵심 도구로 주목받는다. 브라우저는 사용자 데이터가 집중되는 플랫폼이면서 직관적인 UI로 AI 에이전트를 실현하기 좋은 도구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AI 브라우저를 출시하거나 개발 계획을 밝히고 있다. 퍼플렉시티는 지난달 AI 기반 웹



브라우저 '코멧'을 정식 출시했다. 오픈AI는 크로미움 기반 자체 웹 브라우저인 '아우라'를 개발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AI 서비스든 이를 활용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명확한 인터페이스가 있지는 않고, 브라우저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브라우저가 알아서 사람 대신 동작하는 기능도 연구되고 있어 브라우저가 주목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AI 브라우저 개발을 통해

기존 브라우저 시장 판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웹 분석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달 구글 크롬의 점유율은 67.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애플 사파리(16.2%), 마이크로소프트 엣지(5.0%), 파이어폭스(2.4%) 순으로 나타났다. 웨일은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낮지만 국내 점유율은 8.2%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네이버는 공식적으로 AI 브라우저 개발 계획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mailto:sgbyun@etnews.com)

카카오톡 실행하면 광고부터 봐야하나

전면 광고 노출 방안 검토

다음 달 대대적인 카카오톡 앱 개편을 추진 중인 카카오가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면 곧바로 전면 광고를 노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것인데,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IT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곧바로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나 내비게이션 앱 카카오내비에서 이미 사용하는 광고 방식”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노란색 배경에 카카오 로고가 들어 있는 화면이 짧게 노출된 후 초기 화면인 ‘친구’ 탭으로 넘어가거나 곧바로 지인들의 연락처가 나다순으로 된 친구 탭이 실행된다.

카카오는 또 카카오톡의 두 번째 탭인 ‘채팅’ 탭의 채팅방 목록 사이에도 광고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세 번째 탭인 ‘오픈채팅’ 탭에서 실행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첫 번째 탭인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처럼 개편한 뒤 게시물 사이에도 광고를 넣을 계획이다. 광고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에서 이용자들의 눈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실행 직후 첫 화면, 친구 탭, 채팅 탭인데 이곳에 광고를 넣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고 증가로 월간 사용자 수 기준 국내의 54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강한 기자

카카오모빌 승부수 ‘긱 워커’시장 공략

<단시간 근로자>

‘긱 워커 TF’ 구축...수익원 확장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긱 워커 태스크 포스(TF)’를 구축했다. 단시간 근로자 대상 사업의 본격적인 수익화를 위해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주요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인 택시 외에도 긱 이코노미(임시직 경제)·자율주행 등으로 사업 외연을 확대해 실적 개선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긱 워커 TF’를 구성하고 관련 서비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긱 워커란 일시적 일이라는 의미의 ‘긱(Gig)’과 ‘노동자(Worker)’를 합친 용어다. 주당 근로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

카카오T 픽커 등 앱서비스 활성화 택시 의존 벗을 새 캐시카우 발굴 자율주행도 강화...실적 개선 힘써

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배달·대리 기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TF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존부터 서비스했던 긱 워커 플랫폼 ‘카카오T 픽커’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성화해 새로운 캐시카우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꾸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긱 워커 TF에서는 카카오T 픽커의 사업 효율화, 매출 극대화 등을 맡는다”며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T 픽커는 전문 라이더 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한 가입 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배달·대리·세차·퀵 등 단기로 근무할 수 있는 일을 중개해준다. 지난 달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약 11만 5000명이다. 매달 12만 명에 가까운 이용자가 단시간 근로를 위해 픽커를 찾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긱 워커에 주목하는 까닭은 최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주일 근로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약 881만 명이었다. 전체 근로자(약 2858만 명)의 30.8% 수준이다. 1963년 통계청이 고용 통계를 작성한 이래 단시간 근로

카카오모빌리티 ‘긱 워커 TF’ 개요



자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4년(15.4%)과 비교하면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10년 새 2배 늘어났다. 경기 침체에 따라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퇴근 후 부업을 하는 ‘N잡러’도 늘고 있어 긱 이코노미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들어 택시 서비스 외에 또 다른 수익원을 키워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앱 ‘카카오T’의 지난 달 월간활성이용자 수(MAU)는 1414만 명이다.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을 95% 점유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카카오T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로봇 등 수익 다각화에 집중했고, 그 결과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매출에서 택시 등이 포함된 모빌리티 비중을 30% 이하로 일단 낮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긱 워커 플랫폼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등 신사업을 강화해 기업간거래(B2B)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으로 주차 플랫폼 수출에 성공하는 등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외에 수익 창출원을 확대하는 모습”이라며 “이번 긱 워커 TF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한 B2B 사업도 확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양지혜 기자

메타빌드 'AI 네이티브 서빙' AX 공략

**성과 보장형 'LLaMON AX'
신뢰 강화·신규고객 창출 기대**

인공지능(AI) 연계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 메타빌드(대표 조풍연)는 국내 최초로 'AI 네이티브 서빙(LLaMON AX)'을 출시해 공공과 민간분야 AX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LLaMON AX는 문서 자동 분석·이해·처리(도큐먼트 에이전트), 기존 리거시 업무연동, AI연계, A2A, MCP, RAG 등 AI 전체 공정을 플로우 기반 프로토타입으로 실증·검증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도입 실패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성과를 보장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메타빌드는 LLaMON AX 출시로 기존 시장점유율 1위인 '연계미들웨어(MESIM ESB·APIG·DATAHU·mHUB)'와 언어기반 'AI연계(MESIM AX)' 고객의 신뢰 강화와 신규 고객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LaMON AX는 단위 기관 내 다양한 서비스 및 데이터 환경에서 AI를 직관적으로 탐색하고, 플로우 기반 연계형 AI 인터페이스를 통해 손쉽게 연결·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최근 전통적인 SI사업 구조는 리거시 시스템 연동 중심에서 완전 자동화된 AI 네이티브 서빙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김현민기자 minkim@etnews.com

손글씨도 읽는다... 우체국 대기 확 줄인 AI

스타트업UP 스토리

강지홍 로민 대표

앞으로 우체국에서 택배나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 줄을 서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한 우편물 접수업무에 AI(인공지능)기술을 접목, 간소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Lomin

로민 개요

회사명	로민
설립	2018년 5월
대표	강지홍
주요 서비스	AI 데이터 변환 서비스 '텍스트스코프'
특허·저작권	국내 등록 10건, 국내 출원 1건, PCT 출원 1건, SW 저작권 3건, 상표권 출원 2건
인력	36명(연구·개발 23명)

소포 접수·예금 수기문서 등 5종 특화 '텍스트스코프' 인식률 95%... 연내 우체국 100개 창구로 확대 운영 누적매출 100억... 무역업 서비스 개발 '글로벌 야심'

이같은 간소화 서비스의 핵심에는 소포 접수용지·예금 수기문서 등 5종 문서유형에 특화된 인식모델을 개발한 문서AI 전문 스타트업 로민이 있다. 로민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우정사업본부와 개발모델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 연내 우체국 100개 창구에서 해당 시스템을 확대운영기로 했다.

실증과정에서 로민의 문서인식률은 95%를 달성했으며 인식된 데이터의 94%는 별도 검수 없이 즉시 실무활용이 가능했다. 지난 1월에는 우정사업 디지털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업무과정 확 줄인 텍스트스코프=로민은 2018년 5월 강지홍 대표(사진)가 설립했다. 삼성전자에 입사해 컴퓨터비전분야에서 실무를 경험한 뒤 학교로 돌아가 박사과정(서울대 컴퓨터영상)을 밟은 것이 직접적인 창업계기가 됐다. 강 대표는 "회사에서 처음 접

한 딥러닝(심층학습)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사과정 중 여러 과제를 진행하면서 창업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로민은 창업 첫해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인공지능 R&D 챌린지'에서 딥페이크탐지부문 2위로 장관상을 받으며 4억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따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초기 창업자금이 됐다. 이외 다양한 정책과제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해왔다.

로민의 주요 서비스는 AI 기반 고성능 문서데이터 처리 솔루션 '텍스트스코프'다. 텍스트스코프는 OCR(이미지 텍스트 인식기술)을 기반으로 손글

씨, 문맥, 문서구조를 함께 이해하는 고도화된 AI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PDF나 이미지 등에서 글자를 인식해 데이터로 변환할 때 문자 외에 제목이나 부제목, 표 등 형식은 가져올 수 없어 전체적인 맥락이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텍스트스코프는 제목·부제목·표 등 문장의 구조를 각주처럼 라벨링해 정형화된 데이터로 만들어준다.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한 글자까지 문맥으로 유추해 채워넣는다.

이솔루션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는 다른 AI 서비스의 '로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해 'AI를 위한 AI'라는 평가도 받는다. 강 대표는 "텍스트스코프는 단순

한 글자추출이 아니라 문서의 맥락까지 인식한다"며 "LLM(거대언어모델)에 데이터를 넘길 때도 훨씬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와 속속 계약...무역업종 서비스 개발도=현재 텍스트스코프는 금융권(보험사·증권사·은행)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서버형 솔루션 형태로 제공되고 지난해부터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버전도 본격화했다. 지난해 기준 총 46건의 계약이 이뤄졌고 누적 매출액은 100억원을 기록했다.

강점은 대용량 데이터를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텍스트스코프의 도입으로 흥국생명(평균 1~2일 소요된 보험금 청구접수를 10초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였다. 이는 2023년 상반기 생명보험협회 공시기준 업계 최단시간 수준이다.

로민은 지금까지 외부투자를 받지 않았지만 조만간 5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확장을 위한 R&D(연구·개발) 인력확충이 목적이다. 인력확충을 통해 무역업종을 타깃으로 한 서비스 개발과 해외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강 대표는 "무역업은 영어사용 빈도가 높고 이메일 교류가 많은 만큼 AI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쯤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글로벌 문서AI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gys@

챗GPT·드론·AI전문가 ... 건설업계, DX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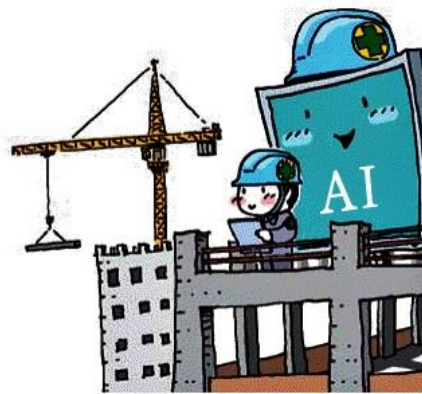
<디지털전환>

부동산 프리즘

GS건설, 기업용 챗GPT 첫 도입
업무 혁신·안전 관리에 AI 활용
드론·사물인터넷 모니터링도

대형 건설회사들이 업무 혁신과 공사 현장 안전 관리 등을 위해 인공지능(AI)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용 챗GPT, 드론, 번역 프로그램 등 다양한 AI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스마트건설을 향한 '디지털전환(DX)'이 확산하고 있다.

GS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오픈AI의 기업용 AI 프로그램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업무에 활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술 및 계약 검토부터 설계도면 분석, 견적과 예산 검토까지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근 오픈AI 본사 직원이 서울 종로 GS건설 본사를 방문해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자동화



방안 워크숍을 진행했다.

GS건설은 다음달 초 오픈AI와 협업해 'GPT 챔피언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직원을 AI 전문가로 육성하고, 현업 문제를 해결할 AI 활용 사례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AI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 현대건설은 4000만 건에 이르는 재해 예측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경고하는 AI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I 기반 스마트 건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공사 지연 가능성을 예측하고, 자재사용 등도 최적화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AI 기반 드론 '포스비전'을 선보였다. 드론을 활용해 외벽 결함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유지 보수 효율을 높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등도 드론과 AI를 결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나 낙하물 위험을 포착하면 즉각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GS건설과 호반건설은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을 위해 AI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 중이다. GS건설은 자체 AI 번역 서비스 '자이 보이스'와 함께 5000 페이지가 넘는 시방서(공사 기준 등을 담은 문서)를 AI로 학습시킨 '자이북'을 도입했다. 호반건설은 현장 곳곳의 대형 전광판에 30개국 언어로 안내 문구를 띄우고 있다. 안정락 기자

당정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AI 확대”

성장·경제·민생 회복 초점
“적극 재정으로 선순환 효과”

GPU 등 인프라 대폭 확충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정부·여당이 내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던 과오를 바로잡고 미래에 적극 투자하기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을 이른바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성장·경제·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선순환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다.

한 의장은 “2026년 예산안은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이 경제 성장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며 “당정 모두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기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이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구축되도록 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핵심은 과학기술 분야 R&D 투자다. 정부·여당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 투자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 의장도 “AI 3대 강국과 AI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GPU 추가 구매 등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창업·구직 등 국민의 실생활에 AI가 도움이 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제조업)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R&D 분야는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 성장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발언에서 “혁신경제·균형성장·기

본이 튼튼한 사회 등 세 가지 축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면서 “R&D 축소, 세수 결손 같은 실책은 없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건설·산업 현장 재해 예방과 화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산업재해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유류 화재 대응을 위한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후 “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 보조 확대, 지방 의대를 통한 지방 성장 견인에도 마음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제5차 상굴래리티 금융 소사이터 포럼이 서울 중구 더존유평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재수 간사, 윤종규 KB금융그룹 고문,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철웅 신한은행 상임감사위원, 신관호 고려대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정혜 과실연 시미래포럼 공동의장, 윤종원 KDI 초빙연구위원, 송병우 토스인사이드 대표,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데이터 막혀 AI 못 크다” 금융권 ‘규제 개선’ 촉구

5차 SFS 포럼

전 산업으로 번지고 있는 제4 물결 AI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1 순위로 데이터 활용 제약이 꼽혔다. 특히 고객 동의를 전제로 한 데이터 개방 확대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철웅 신한은행 상임감사위원(전 금융보안원장)은 25일 열린 제5차 상굴래리티 금융 소사이터(SFS) 포럼에서 “금융권에서 AI 에이전트의 개념검증(POC) 단계까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 활용과 학습 제약 때문”이라며 “정부가 금융사 책임 아래 고객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권 AI·빅데이터 활용을 막는 장벽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망분리 규제 △신용정보법 등이 꼽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신용·건강 정보, 위치정보 등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분석과 AI 학습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별도 동의 대상이 된다.

김 감사위원은 “정부가 데이터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와 클라우드 사업자 간 데이터 사용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면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고문도 데이터 활용 제약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건강, 세금 데이터는 본인이 동의하면 합리적으로 제공돼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공공기관 회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대출 심사에서 주택 소유 현황 같은 정보를 고객 동의를 받고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유민기자 newmin@etnews.com

▶관련기사 10면

“은행권 ICT 투자 5년간 정체…AI 리더십 확보 유인책 시급”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은행·보험 등 전통 금융업의 판을 흔들고 있다. 마중 금융사는 AI로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맞춤형 서비스까지 확장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금융권은 투자 정체와 규제 제약에 발목이 잡혀 격차가 커지고 있다.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을지타워에서 열린 ‘제5차 상굴래리티 금융 소사이터(SFS)’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은 생성형 AI이며 향후 양자컴퓨팅 등 기술 고도화와 맞물려 파괴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내 금융회사의 AI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회사에선 AI 투자가 이미 핵심 경영전략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JP 모건의 ICT 투자 규모는 2019년 16조 3000억원에서 지난해 23조6000억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업 전체 ICT 투자는 2조7000억~2조9000억원 수준에 머물며 5년간 정체됐다. JP모건은 올해도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180억달러(약 25조원)를 AI와 블록체인 등 기술 분야 투자를 단행했다. 이는 2021년 125억달러 대비 40% 이상 증가한 규모다.

JP모건 작년 24조원 규모 투자
국내 은행 전체 집행액 8배 수준
AI 투자, 비용으로 인식해 문제

AI 연봉, 프로 스포츠 스타 추월
국내 인재양성 전략 재설계 필요
일자리 상실 문제도 대응책 시급

그는 “한국 금융회사 AI 투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사와 비교하면 다소 부족하다”며 “국내 금융회사 경영진 임기가 짧고 생성형 AI 등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ICT)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AI·기계학습(ML) 관련 인적·물적 투자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권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정혜 과실연 시미래포럼 공동의장

AI 리더십은 2023년 이후에야 본격화되기 시작해 아직은 내재화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경영실태 평가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AI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사인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글로벌 보험사 등도 단순히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리스크 관리 등 고객 접점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를 도입하며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는 “AI 혁신의 이면에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투입해 자율 규제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AI를 활용해 선택제(감독기술)·레그테크(규제기술) 등 새로운 감독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종산업 데이터 결합 필요성도 거듭 제언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융합해 혁신 서비스를 내놓기 어렵지만 해외에서는 의료·보험 데이터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어 맞춤형 헬스

케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 평안보험은 AI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예방부터 치료·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망분리 규제 △신용정보법 등 각종 규제가 데이터 활용을 제약해 이 같은 혁신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AI 연계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서는 송배전망과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 역시 크게 부족하다”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순간적인 전력 수요를 관리하는 핵심 설비인데 국내에서는 이 분야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한국의 데이터센터 수는 84개로 세계 22위 수준이다. 미국(381개), 독일(46개), 중국(362개), 일본(186개)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전력 수요 증가와 분산형 전원 확대에도 송전선로 확충은 더디고 ESS 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자본시장을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류정혜 과실연 시미래포럼 공동의장은 AI 발전이 노동시장과 인재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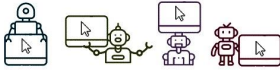
쟁 구도에 미치는 파장을 짚었다. 류의장은 “과거에는 수천명을 고용하던 대기업이 AI 기반 신생기업 몇십명 규모로도 수조원대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열렸다”며 “미드저니, 일러스트 같은 AI 기업들은 적은 인원으로도 빠르게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미국에서는 ‘AI 퍼스트 시대’를 선언하며 어떤 일을 맡길 때 왜 AI로 대체할 수 없는지 입증해야 업무를 승인하겠다는 기업도 등장했다”며 “연내 일반 개발자의 90% 이상 업무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류의장은 “AI의 단기적 위험은 무엇보다 일자리 상실”이라며 “개인과 사회, 특히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는 AI 인재 연봉이 프로 스포츠 스타보다 높아진 첫해로 기록됐다”며 “데이터센터만큼이나 AI 인재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류의장은 “메타의 슈퍼 인텔리전스팀 명단에서 중국계 연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은 한국이 인재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할 지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박유민기자 newmin@etnews.com

탭 열기 귀찮으셨죠? 'AI 탭댄스' 즐기세요



AI 브라우저가 바꾸는 당신의 '디지털 일상'



생성 인공지능(AI) 등장과 구글의 반독점 소송으로 웹브라우저(브라우저) 시장은 현재 지각변동 중이다. 챗GPT로 생성 AI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오픈AI마저 AI가 들어간 새 브라우저를 만들겠다고 손을 들었다. AI 검색의 다크호스 퍼플렉시티는 이미 코멧이라는 AI 브라우저를 들고 나왔다. 물론 전통의 브라우저 강자 구글, '에지' 있는 부활을 꿈꾸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켜만 보고 있지 않는다. 사용자 일상을 지배할 AI 브라우저는 무엇이 될 것인가. AI 브라우저는 일반 브라우저와는 뭐가 다를까. AI 브라우저 전장의 현재와 미래를 파헤쳤다. 권유진·김남영 기자 kwon.yujin@joongang.co.kr



브라우저에 '자능' 심는 이유

2025년 4월 미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 매각 등을 포함한 조치를 법원에 제청했다. 이에 오픈AI의 제품 총괄인 니 터리는 법정에서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게 된다면, 오픈AI도 그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픈AI가 이미 크롬 개발자 출신들을 영입했다며, 자체 AI 브라우저 개발 의지가 있다는 점도 알렸다. 지난달 9일 로이터는 오픈AI가 자체 AI 기반 웹 브라우저를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픈AI가 웹 브라우저에 매달리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구글이 브라우저로 버는 막대한 광고 매출 파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AI 에이전트들을 웹 브라우저와 통합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브라우저의 전략적 가치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그냥 정보와 정보를 연결해 주는 창이었다면, 앞으로는 웹 페이지·앱·검색·생산성 도구·AI 어시스턴트를 모두 조율하는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하나의 인터페이스 안에서 더 적은 클릭으로, 더 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탭 전환 없는 대화형 탐색, 문맥 기반 요약, 정보 출처 추적, 그리고 실시간 에이전트 실행 등은 차세대 브라우저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AI 브라우저는 AI 성능 개선에도 유용하다. AI 훈련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웹 크롤링(웹 상 데이터 수집)으로 글을 수 있는 데이터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 이제 기업들이 눈독 들이는 건 사용자의 '실시간 행동'이다.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페이지에 머물렀는지, 어디서 결재했는지 등이 모두 미래의 AI 성장을 위한 연료다. 브라우저는 그 모든 걸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자, 매일 수억 명이 스스로 데이터

를 헌납하는 금광이다. 기업들이 검색 엔진, AI 모델 다음으로 '브라우저' 전쟁을 벌이는 이유다.

나 대신 일하는 브라우저

AI 브라우저,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이전까지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고, 수많은 탭을 열어 정보를 비교한 뒤 행동을 결정했다. 하지만 AI 브라우저에선 그런 수고가 사라진다. 사용자는 명령만 하면 된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싱가포르 가는 저렴한 항공편 찾아줘"라고 하면 브라우저가 사용자의 시간대 선호 같은 맥락까지 고려해 옵션을 압축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예약까지 진행한다. 탐색을 넘어, 실행까지 가능한 AI 에이전트가 브라우저에 탑재되는 것. 다만 현재 초기 단계 AI 브라우저는 이 과정이 아직 매끄럽진 않다. 또 AI 브라우저는 단순히 질문에 반응하는 수준이 아니다. 사용자 명령의 맥락, 어조, 목적을 이해하고, 과거 행동 패턴까지 반영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주 찾는 브랜드나 평소 선호하는 출판 시간 같은 정보를 기억하고 제안에 반영한다.

브라우저 역할도 바뀐다. 기존 브라우저는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창'이었다. 그러나 AI 브라우저는 그 내용을 요약하고 해석하며, 심지어 웹페이지 안에서 버튼을 누르고, 폼을 작성하고, 댓글을 입력하는 실행자가 된다.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도구를 넘어 인터넷의 인터페이스를 직접 조작하는 손과 두뇌가 되는 것. 탭과 버튼 중심의 그래픽 인터페이스(GUI)도 줄어들고, 그 자리를 프롬프트 창과 대화 히스토리가 채운다. 즉 마우스 대신 자연어가 중심이 되는 NUI(내추럴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크롬 천하 뒤집으려는 대적자들

기존 강자들은 AI를 무기로 반격을



1 AI, 이용자 성향 파악해 검색·실행 '탭 난무' 기존 브라우저와 차별화

2 브라우저, 수억명 데이터 '한가득' AI 회사 앞다퉂 '크롬 타도' 선언

3 이용자 입장선 'AI집사' 생겼지만 개인정보 오남용, 해킹 피해 우려

준비하고 있고, 새 도전자들은 아예 AI 중심 브라우저로 판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글로벌 점유율 60% 이상인 압도적 1위 구글의 크롬은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AI 모델 제미니를 탑재해 사용성을 개선하고 있다. 웹 페이지의 긴 콘텐츠를 간결하게 요약해 준다거나, 브라우저 내에서 대화형 AI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식이다. 이미 브라우저 '에지'를 가지고 있는 MS는 완전히 새로운 AI 브라우저를 내놓기보다는, 에지를 AI 브라우저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에이전트 브라우저'. 사용자가 목표만 제시하면 AI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 정보를 탐색·비교·실행하는 것이다. 현재 에지에 탑재된 '코파일럿 모드'는 에이전트 브라우저의 초기 모습. 현재는 웹페이지를 읽어주고, 요약하며, 질문에 답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이미지 생성, 작문 도우미 등 창작 도구까지 제공하는 게 특징. MS는 오픈스 365와 연동을 통해 업무 생산성에 특화된 브라우저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단 점유율은 아직 11%로 구글과의 격차는 좁히지 못하고 있다.

퍼플렉시티는 지난달 AI 브라우저 '코멧'을 공개했다. 코멧은 기존 브라우저와 달리 모든 기능이 AI 중심으로 설계됐다. AI 에이전트인 '코멧 어시스턴트'를 탑재해 웹 탐색 기록을 바탕으로 물건 구매, 예약, 이메일 전송, 일정 요약 등 일상 업무를 음성 명령이나 자연어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실제 써보니 키보드로 문장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소용이 가능했다. 티셔츠를 찾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마우스로 하나하나 클릭해 들어가는

수고로움을 없앴다. '3만원 이내로 흰 티셔츠를 사고 싶어'라고 입력하자, 탐색과 추천을 통해 다양한 의류 플랫폼을 찾아내더니 플랫폼별 흰 티셔츠를 보여주고, 상황별로 상품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개인화한 지지도 가능하다. 제미니와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한 뒤 퍼플렉시티로 찾은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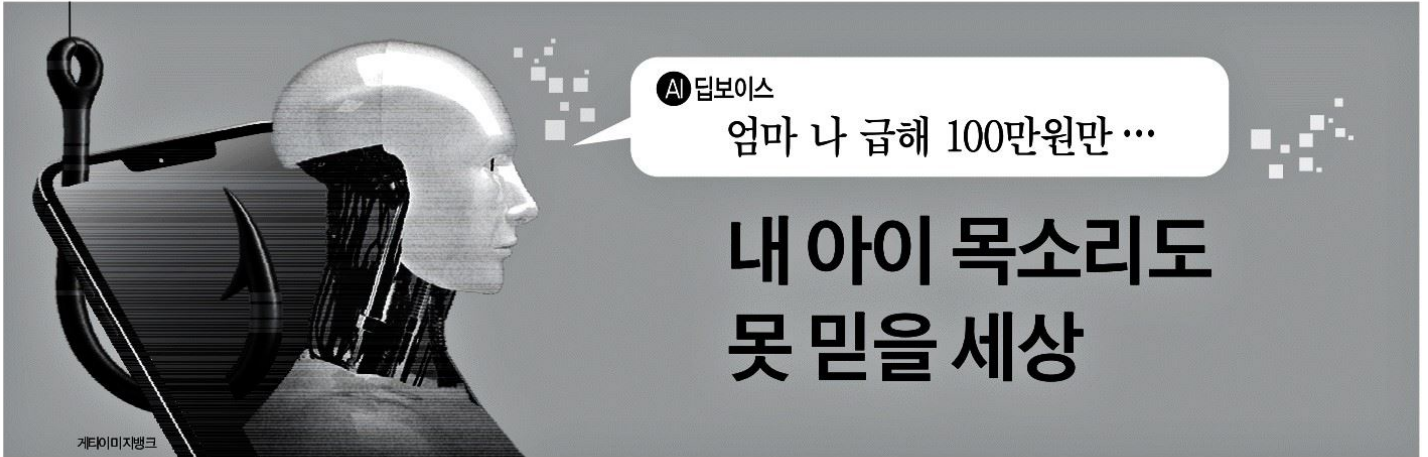
AI 브라우저, 디지털 집사일까 감시자일까

AI 브라우저는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는 'AI 비서'에서 더 나아가 일상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AI 집사'로 진화할 수 있다. 특히 AI 브라우저에 달려 있는 '음성 모드'가 이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AI 브라우저에 맡긴 하면 업무도, 쇼핑, 일정 조율도 대신 해주는 것. 유채연 한양대 사회혁신융합 전공 겸임교수는 "대신 소비해 주고, 정보를 찾아주고, 여행 계획 짜주는 집사처럼 AI가 اولین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AI 브라우저는 검색부터 결제, 콘텐츠 소비까지 하나의 인터페이스 안에 통합된 '올인원 플랫폼'을 지향한다. 각각의 앱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한 회사 손에 집중되는 순간, 통합은 곧 '독점적 감시'가 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클릭 수는 줄고 편의성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넘겨주는 정보도 많아진다. 게다가 AI는 사용자의 검색 기록, 방문 사이트, 입력 텍스트, 심지어 음성까지 학습해 개인의 취향과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게 된다.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뿐 아니라 해킹 시 피해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특히 AI 브라우저가 금융, 의료, 업무 등 민감한 영역까지 깊숙이 관여할수록 위험도는 더욱 증가한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통합된 브라우저는 분명 편리하지만, 사용자가 넘기는 정보도 훨씬 많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QR코드를 스캔해 The JoongAng Plus에 접속하면, 혁신의 최전선을 들여다보는 '팩트'의 보다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AI로 목소리 변조 보이스피싱 활개
1분짜리 음성 있으면 톤·말투 복제
개인정보 꿰뚫고 발신번호 조작도
정교한수법에올해피해1조 넘길듯**

50대 여성 A씨는 최근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딸 전화를 받았다. 운전하던 중 전화를 받은 A씨는 다급한 딸 목소리에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냈다. 허겁지겁 수십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뒤늦게 딸이 전화를 건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충격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답보이스’(AI 변조 음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을 타겟으로 자녀 목

소리로 속여 전화하는 범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액수는 6421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반기까지 더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액 증가는 기술 진보와 함께 수법이 정교해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에게 임의로 전화를 거는 식이었다. 자연스럽게 많은 보이스피싱 특유의 어투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챈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맞춤형 사기가 이뤄진다. 여기에 AI로 영상과 목소리를 위조하면 가족들도 감쪽같이 속을 수 있다.

특히 답보이스는 짧은 통화로 얻은

목소리만으로도 피해자의 말투와 억양을 정교하게 복제할 수 있다. 음성 합성(TTS) 모델 일레븐랩스의 경우 30초에서 1분가량의 목소리가 있으면 톤과 말투까지 복제 가능하다. 발신번호 조작 기술까지 발달하면서 피해자는 실제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라고 속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표적인 수법은 납치 사칭형이다. 지난 4월 AI로 만든 딸의 목소리로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한 시민이 불안에 떠는 것을 목격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사례가 알려졌다. 한 상가에서 일하는 B씨는 딸 목소리와 똑같은 통화음성으로 ‘누군가에게 납치됐다’는 말을 들은 상태로 겁에 질려 있었다. 직원 C씨는 쪽지를 써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점을 알리고 B씨 딸의 안전을 확인해 피

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 사례처럼 긴급 송금형 사례도 많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I로 자녀·친구 목소리를 흉내 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애기한 뒤 타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카톡, 문자 등을 활용한 메신저 피싱으로 연결하는 수법이다.

자녀를 둔 중장년층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낸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칭형’ 보이스피싱 중 기관 사칭을 제외한 메신저피싱 피해자의 94.8%가 50대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답보이스를 활용한 사기에 크게 의심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GPU-투자만으로는 추격자될 뿐... 한국이 가야 할 '소버린 AI'의 길



맹성현의
AI시대 생존 가이드
태제대 부총장·KAIST 명예교수

진정한 'AI 주권' 확보하려면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전담 수석 직책을 신설한 데 이어 AI 대전환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그래픽처리장치(GPU) 추가 구매 등 AI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의지와 속도 모두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사회 전체가 AI라는 거대한 물결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세계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볼 때, 지금의 계획만으로는 영원히 '따라잡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AI수석-100조 펀드 등 새 정부 의욕 특정 모델에 집중하면 따라잡기 돼 투자 일부 차세대 원천 연구에 쏠려

AI가 사회구조 변화 일으키는 만큼 교육-직업-윤리 등에도 대응 필요 AI 공존방식 찾을 때 진정한 'AI 강국'

정부는 한국 독자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국가대표 AI' 지원에 나섰다. 최신 글로벌 AI 모델에 버금가는 성능의 '소버린(Sovereign·주권) AI'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의 중심에는 트랜스포머 기반 대형언어모델(LLM)이 있다. 이는 세계와 경쟁하면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고, 산업에 당장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다.

그러나 기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한 기술은 늘 교체됐다. IBM은 메인프레임을 사실상 독점하며 PC 혁명의 불을 지피고 MS, 인텔 등에 주도권을 넘겨줬다. 아후는 인터넷의 상징이었지만 구글 검색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오늘날에는 구글조차 챗GPT 등 AI의 도전에 직면해 검색의 미래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특정 기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도 많은 기업이 피쳐폰 경쟁에 매달렸다. 하지만 판은 바뀌어 있었고, 최고이던 노키아조차 물락을 피하지 못했다. 한국이 모든 자원을 트랜스포머 기반 경쟁에만 쏟는다면 막대한 자원을 가진 미국, 중국과의 정면승부에서 이기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차세대 패러다임이 열리는 순간 또다시 추격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산 배분은 지금과 미래를 동시에 겨냥해야 한다. 전체 예산의 80~90%는 기반 기술 경쟁과 산업화·실용화를 위한 기술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특화 언어모델, 산업별 맞춤형 AI, 연산 인프라 확충 등을 말한다. 나머지 10~20%는 반드시 차세대 AI 원천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 지금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돌파구는 여기서 나온다.

차세대 연구 방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뉴로-심볼릭 AI'다. 신경망의 직관적 판단과 상징 처리의 논리적 추론을 결합해 현재 AI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해석가능성(interpretability)의 부재, 즉 '블랙박스 문제'를 보완하려는 시도다. 최근 앤스로픽은 자사 모델에 내재된 수십만 개의



? 소버린(Sovereign·주권) AI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개발, 인프라 구축, 응용 서비스까지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자주적 역량을 갖추고 독립적 운영이 이뤄지는 AI 생태계

진정한 '소버린 AI'를 완성하려면



기술 주권
• 학습 데이터 접근성
• 부품(GPU) 접근성
• 지식·모델 접근성



디지털 주권
• 데이터 보안
• 정보기술(IT) 보안
• 네트워크 신뢰성



사회적 주권
• 교육혁신 거버넌스
• 직업 대전환 대응
• 윤리·안전 기준 마련

뉴런을 의미 단위로 해석하는 연구를 공개해 화제가 됐다. 트랜스포머의 해석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다. 당장 뉴로-심볼릭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AI 내부 과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란 점에서 맥이 닿아 있다. 이런 도전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미래 변화의 물결에서 또다시 뒤처질 수밖에 없다.

AI의 '사회적 주권'도 다뤄져야 할 주제다. AI가 특정 산업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AI 시스템은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를 대체할 수준에 와 있다. 법률 자문, 회계 처리, 금융 분석, 창작까지 그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준비는 여전히 추상적인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은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다. 암기

와 문제풀이 능력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해외에서는 이미 AI를 학습 파트너로 활용하는 교육혁신이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챗GPT의 '학습(study) 모드'는 단순히 정답을 내놓는 대신에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한국 교육이 이런 흐름을 외면한다면 미래의 주권은 기술보다도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흔들리게 될 것이다.

직종별 AI 대체 영향도를 분석하고,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인간은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인간다움, 공감 능력 같은 고유 역량을 길러내야 한다. 또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는 안전 및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다.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이다.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공존이다. 이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윤리적 원칙과 안전성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술 성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소버린 AI의 진정한 의미는 독자적 기술력 확보에만 있지 않다. AI와의 공존으로 개인과 사회의 효율을 높이고 난제를 해결하며 한국적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권의 길이다. 대규모 투자, GPU 확보, 공공 AI 바우처 도입 등도 모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이여야 한다. 이 철학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한 추격자를 넘어 진정한 AI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구글이 27억弗에 재영입 ‘AI 천재’ “추론 속도, 메모리 병목해결이 관전”

노암 샤지어 ‘핫칩스’서 기조연설
“메모리 용량·대역폭 클수록 좋아”
병목현상 풀 HBM 중요성 강조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위한 하드웨어는 계산력은 물론 충분한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이 필수입니다. 병목이 심해 모든 계층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 빠른 추론을 위해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인공지능(AI) 모델을 분산시킬 상호 연결성을 갖춰야 합니다.”

노암 샤지어 구글 제미니 AI 프로젝트 공동 리더는 25일(현지 시간) 미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핫칩스 2025’ 기조연설자로 나서 “AI의 속도는 매개변수(파라미터)를 얼마나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나 현대 반도체는 메모리보다 연산 속도가 더 빠르다”며 “빠른 추론을 원한다면 칩셋 전체의 메모리 대역폭이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샤지어는 생성형 AI 시대의 문을 연 구글브레인의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 논문 공저자 중 하나다. 지난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딥러닝의 아버지’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와 공동 연구로 오픈AI·딥시크 등이 애용하는 전문가 혼합(MoE) 방식을 개발했다. 샤지어는 이후 캐릭터AI를 창업했으나 지난해 구글이 27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에 회사를 인수하며 ‘친정’으로 복귀했다. 최근 메타가 유행시킨 ‘애크하이어(acqui-h



노암 샤지어(화면 왼쪽) 구글 제미니 AI 프로젝트 공동 리더가 25일(현지 시간) 미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핫칩스 2025’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ire·인수와 고용의 합성어)’ 붐의 시작을 끊은 셈이다.

샤지어는 알고리즘이 아닌 하드웨어가 AI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7년 전 연산력·데이터 등이 ‘클수록 좋다’고 주장했던 강연을 회고하며 데이터·매개변수 확장을 제한하는 메모리의 한계가 AI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80여 년간 컴퓨터 표준으로 자리 잡은 폰 노이만 구조가 지닌 근본적 한계 탓이다. 폰 노이만 구조는 연산장치·메모리·프로그램을 구분해 하나의 하드웨어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이 분리돼 있어 상대적으로 느린 메모리를 통해 프로그램을 읽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AI 시대가 열리며 읽어야 할 데이터가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병목의 문제점이 더욱 도드라지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퍼플렉시티, 기사 사용 대가 구독료 80% 언론사에 배분

월 5달러 새 구독 서비스 출시 콘텐츠 제작자와 수익 공유

인공지능(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구독 서비스 수익의 80%를 언론사에 배분하는 새로운 수익 공유 모델을 도입했다. 기사 무단 활용 논란 등 언론사들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언론사와 AI 기업 간 갈등 완화의 전환점이 될 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자사 AI 브라우저 '코멧'에서 검색에 활용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에 직접 보상하는 구독형 서비스 '코멧 플러스(Comet Plus)'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구독자는 월 5달러를 내고 참여 언론사들이 선별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독료의 80%가 콘텐츠를 생산한 언론사에 돌아가는 구조다.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퍼플렉시티 최고경영자(CEO)는 "AI는 더 나은 인터넷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언론사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모델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퍼플렉시티는 초기 단계에서 4250만달러(약 600억원) 규모의 보

상 풀을 마련해 언론사에 보상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코멧 플러스 구독 모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스리니바스 CEO는 코멧 플러스가 '애플 뉴스플러스'와 유사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퍼플렉시티는 그동안 '퍼블리셔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 수익 일부를 공유해왔지만, AI가 직접 웹페이지를 분석해 기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 없었다. 이번 코멧 플러스 도입으로 콘텐츠의 노출 빈도와 사용자 질의 기여도 등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AI의 기사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이 같은 수익 공유 모델을 도입한 최초의 AI 스타트업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퍼플렉시티의 이번 조치가 AI 기업과 언론사 간 저작권 갈등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간 언론사들은 AI가 기사를 무단 활용하면서 독자 트래픽까지 흡수한다고 반발하며 각종 AI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퍼플렉시티도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WSJ) 모회사 다우존스와 뉴욕 포스트를 보유한 뉴스코프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안선제 기자

오픈AI에 ‘또’ 판지 건 머스크

OS·챗GPT 통합 파트너십 놓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 상대로 또 태클을 걸었다. 이번엔 애플까지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모바일과 인공지능(AI) 각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두 회사의 파트너십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가 소유한 X(옛 트위터)와 xAI는 애플과 오픈AI가 AI분야 경쟁을 방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담합했다며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 오픈AI가 지난해 6월 파트너십을 맺고 아이폰·아이패드·맥의 운영체제(OS)에 챗GPT를 통합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머스크 측은 소장에 “스마트폰 시장 독점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시도에서 애플은 AI분야 경쟁과 혁신을 억압하는 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과 손을 잡았다”며 “생성형AI 챗봇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오픈AI”라 명시했다.

또 “오픈AI와의 독점계약이 없었다면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X와 (xAI의 생성형AI) ‘그록’ 앱을 더 눈에 띄게 홍보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X와 xAI 같은 혁신기업들이 경쟁하지 못하도록 시장을

잠그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올트먼 등과 함께 오픈AI를 2015년 공동창립했으나 2018년 오픈AI 이사회를 사임하며 떠났다.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로 오픈AI가 설립취지를 벗어났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했고 지난해에는 영리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걸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2월 974억달러(약 135조원)에 오픈AI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인수 제안에 참여시키려 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반독점법 전문가들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가 오픈AI 챗GPT를 불법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xAI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사 협력이 경쟁 환경에서 내린 비즈니스 결정이며,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 확보에 도움을 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애플의 경우 자사 시스템과 챗GPT 통합에 대해 운영·보안상 사유를 내세울 수도 있다.

크리스틴 바르톨로뮤 버팔로대 법학 교수는 “이 소송은 법원이 AI를 어떻게 다루고, 반독점법과 AI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애플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팽동현 기자



시칩 넘어 로봇 두뇌로...진격하는 엔비디아

로보틱스 칩 '젯슨 토르' 공개
LLM·시각 모델 동시에 구동
물리세계 이해·인간과 상호작용
휴머노이드부터 물류·의료까지
다양한 산업 로봇서 '두뇌' 역할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가 차세대 로보틱스 칩 모듈을 공개하며 로봇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개한 제품은 인간형 로봇부터 물류·의료 자동화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피지컬 AI' 시대를 앞당길 핵심 기술로 꼽힌다. 엔비디아는 이를 통해 AI 반도체를 넘어 로봇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엔비디아는 25일(현지시간) '로봇 두뇌'라고 명명한 로봇 칩 '젯슨 AGX 토르'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3499달러로, 개발자 패키지 형태로 제공돼 기업과 연구자가 시제품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양산 단계에서는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엔비디아의 로봇 칩인 '토르 T5000' 모듈을 도입할 수 있다. 개발 단계에서 검증한 소프트웨어와 아키텍처를 그대로 양산용 모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제품에



아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지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엔비디아가 출시한 로봇 관련 제품

제품	분류	특징
코스모스	파운데이션 모델	물리 세계 이해, 추론
아이작 GR00T	파운데이션 모델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용
옵니버스	플랫폼	3D 협업, 시뮬레이션
젯슨 AGX 토르	AI 칩	소형, 저전력 로봇 두뇌
RTX 프로 블랙웰 서버	AI 서버 플랫폼	AI 작업 · 그래픽 처리 지원

서 검증한 기술을 양산 단계에서도 그대로 이어 쓸 수 있도록 해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젯슨 토르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아키텍처인 블랙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전 세대보다 최대 7.5배 향상된 성능을 자랑할 뿐 아니라 128GB 메모리가 탑재돼 대규모언어모델(LLM)과 같은 AI를 로봇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다.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아도 사전 학습된 모델을 실행할 수 있어 현장에서 실시간 인식과 반응이 가능하다.

엔비디아는 젯슨 토르가 제조, 물류, 운송, 의료, 농업,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로봇의 두뇌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로봇 스타트업 피겨AI는 젯슨 토르를 채택해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과 주변 환경 인식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아질리티로보틱스 등 주요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활용해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아마존로보틱스는 물류센터 자동화 로봇에 적

용해 물류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중장비 개발사인 캐터필러 또한 자율주행 기술에 젯슨 토르를 활용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로봇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다. 대신 칩(두뇌)과 소프트웨어(신경망)를 제공해 로봇 산업의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를 장악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운영체제를 통해 PC 생태계를 지배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엔비디아는 이미 전 세계에 200만명이 넘는 개발자와 7000여 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아이작(Isaac), 코스모스(Cosmos)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CES 2025'에서 "AI가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고 추론하는 피지컬 AI 시대로 들어섰다"며 "일반 로보틱에서도 곧 젯GPT처럼 혁신적인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후 엔비디아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부문을 통합해 칩과 플랫폼을 결합한 AI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억 대의 로봇과 자율주행차를 엔비디아 생태계 위에서 운용해 나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는 올해 피지컬 AI를 위한 첫 파운데이션 모델인 '코스모스'와 추론 능력이 더해진 '아이작 GR00T'를 내놔다. 코스모스가 카메라와 센서로 들어온 데이터를 분석해 세상을 이해하는 역할을 한다면, 아이작 GR00T는 이를 기반으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게 하는 모델이다.

엔비디아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로봇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이날 발표한 젯슨 토르를 통해선 로봇 내부에서 모델을 실시간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로봇 개발에 필요한 전 주기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 로봇 사업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에 불과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자동차 및 로보틱스 부문은 올해 2~4월에 전년 동기 대비 72% 늘어난 5억6700만달러의 매출액을 올렸다.
실리콘밸리 원호성 특파원

<4년간> 현대차 美투자 총 260억弗로 年 3만대 규모 로봇공장 신설

3월 발표 투자액서 50억弗 더해
美 핵심 투자는 제철·자동차로봇

현대차그룹이 4년 동안 26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26일 밝혔다. 3월 정의선(사진)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약속한 대미 투자 210억 달러(약 29조 원)에서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로봇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내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새로 짓기로 한 것이 추가 투자 계획의 핵심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한다”며 “3월 발표한 2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핵심 분야는 제철, 자동차, 로봇 등 미래 산업이다. 특히 이번 추가 투자 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건 로봇 공장 신설이다. 3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직접 밝혔던 대미투자 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현대차그룹은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만들고 이 공장을 미국 내 로봇 생산의 허브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본사를 둔 로봇 전문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앞세워 로봇산업을 이끌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로봇은 물론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등 미래 신기술과 관련된 미국 유수의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보스턴다이내믹스,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 등 미국 현지 법인의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저탄소 고품질의 강판을 생산해 자동차 등 미국 핵심 전략 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그룹은 철강-부품-완성차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을 구축하게 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 능력도 확대한다. 2024년 기준 70만 대였던 미국 완성차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차종 라인업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국내에도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4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2024년 20조4,000억 원 대비 19% 이상 늘어난 액수다.

조아름 기자

삼성 스마트팩토리 노하우를 단무지 공장에 ... 생산량 39% 꺾충

스마트 산업공국
함께 하는 제조혁신 2.0

매경·삼성 공동 캠페인

단무지 제조하는 자연그린
올해부터 스마트공장 혁신
공정 자동화로 생산효율 높이

안전·위생도 한 단계 성장
“3년내 매출 200억 달성 목표”

“예전에는 종일 삽으로 양념을 퍼
담아 무와 섞느라 허리·어깨가 남이나
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대신 배
합을 해주니 훨씬 편해졌습니다.”

경북 문경의 작은 농공단지. 단무지
특유의 새콤한 향이 퍼지는 공장 안에
서 만난 한 직원은 달라진 현장을 이렇
게 설명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삽과 바가지로 들고 무와 양
념을 섞은 뒤, 다시 바가지로 퍼 담아
포장지에 넣는 모습이 일상이었다.

무거운 상자를 수작업으로 옮기느
라 허리·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 배합기와
자동 계량기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사
람 손이 덜 닿으면서 품질이 균일해지
는 동시에 위생과 효율은 높아졌다.

자연그린은 2004년 설립된 단무지
전문 제조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99



박노정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지원센터 위원(왼쪽)과 김경범 자연그린 대표가 생산된 단무지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억원에 육박했으며, 국내 단무지 시장
점유율은 10% 수준이다.

하지만 자연그린 역시 문경 지역 인
구 감소, 외국인 노동력 의존, 근골격
계 질환 위험 같은 한국 제조업 전반의
구조적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다. 생
산 현장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던 차에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인연을 맺으며 본격적인 혁신이 시작
됐다.

첫 번째 단계는 외포장 공정 자동화
다. 올해 3월 팰리타이징 시스템을 도
입하면서 하루 생산 능력이 1800상자
에서 2500상자로 39% 증가했다. 상자
운반 시간은 건당 8초에서 5초로 줄어
효율성이 38% 개선됐다. 463㎡(약

140평)였던 포장 공간은 198㎡(약 60
평)로 축소돼 265㎡(약 80평)를 절감
하는 효과도 얻었다.

작은 변화의 성과는 현장 곳곳에서
나타났다. 종류만 33가지에 달하던 상
자를 4종으로 표준화해 관리 부담을
줄였다. 김밥용 단무지와 맛 단무지가
뒤섞이던 라인도 전용 라인으로 분리
해 불량률을 낮췄다. 금속 검출기를 외
포장에서 내포장 구역으로 옮겨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맞췄
다. 지게차와 작업이 함께 드나들어 위
험했던 입구는 출입구와 동선을 분리
해 안전성을 높였다.

두 번째 단계는 조미 공정 자동화
다. 이전에는 직원들이 커다란 삽으로

양념을 퍼 담아 무와 섞어야 했다. 똑
같은 동작을 수십 차례 반복하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
었고, 섞는 강도나 속도에 따라 제품의
맛과 품질에 편차가 발생했다. 이제는
자동 배합기가 일정한 속도로 양념을
섞어 품질이 안정됐고, 직원들의 노동
부담도 줄었다.

김경범 자연그린 대표는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하다 보니 몸에 무
리가 갔다”면서 “기계가 대신하면서
품질이 고르게 유지되고 직원들의 건
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포장 공정도 혁신됐다. 과거에는 직
원이 바가지로 단무지를 퍼 담아 포장
지에 넣었지만, 지금은 자동 계량기가

자연그린 스마트공장 전환 이후 생산성 증가

하루 생산량 (39% 증가)	1800상자→2500상자
상자 운반 시간 단축	건당 8초→5초
포장 공간 효율화 (80평 절감)	140평→60평
불량·혼입률 감소, 품질 안정화	전용 라인 분리, 혼입 감소
안전·위생·작업 강도 개선	

정량을 맞춰 바로 투입한다. ‘사람 손
이 닿을수록 식품은 비위생적’이라는
약점을 자동화로 보완하면서 소비자
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제조 위생 환
경을 구축하게 된 셈이다. 자연그린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개선 과제 총 95건
을 발굴해 전부 완료했다.

회사는 이를 위해 약 5억원을 투자
했다. 혁신에는 출입문 명판을 부착하
고 구역 표시를 정비한 작업, 대형 절
임통 배수 공정 효율화, 김밥 단무지
전용 라인 구축, 설비와 구역별 표준화
등이 포함됐다. 직원들은 “작업 시간
이 절반 가까이 단축됐고, 바닥 오염과
혼입 사고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생산 효율뿐만 아니라 안전·위생 수준
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문
경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젊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다. 김
대표는 “사람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동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며
“여성 친화 기업으로서 지역 여성과 청
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
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사는 HACCP 인증을 추진
중이다. 매출 규모가 100억원에 근접
하면서 법적으로 인증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장 리모델링까
지 단행했다. 인증을 받게 되면 삼성웰
스토리, 학교 급식, 군납 등 대형 급식
시장으로 판로 확대가 가능해진다. 회
사는 3년 내 매출 200억원 달성을 목표
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단무지 제조
를 ‘반도체 공정’에 빗댄다.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자동화, 오차 없는 계량, 위
생 극대화라는 시스템을 통해 ‘반도체
처럼 단무지를 만들어보자’는 구호를
현실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단순한 비
유가 아니라 회사 경영의 지향점이다.

향후 계획도 준비돼 있다. 기후변화
로 원재료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계약
재배 농가를 전국 10곳으로 분산했고,
스마트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단무지
에서 추출한 유산균과 비타민을 활용
한 기능성 식품 개발, 1인 가구를 겨냥
한 소포장·현대적 패키지 디자인 출시
등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회사를 유지·발전시키
려면 최고 시설에서 최고 품질의 제
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며
“스마트공장은 우리 단무지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문경박소라 기자

은행권, IT·유통사와 ‘원화코인 연합’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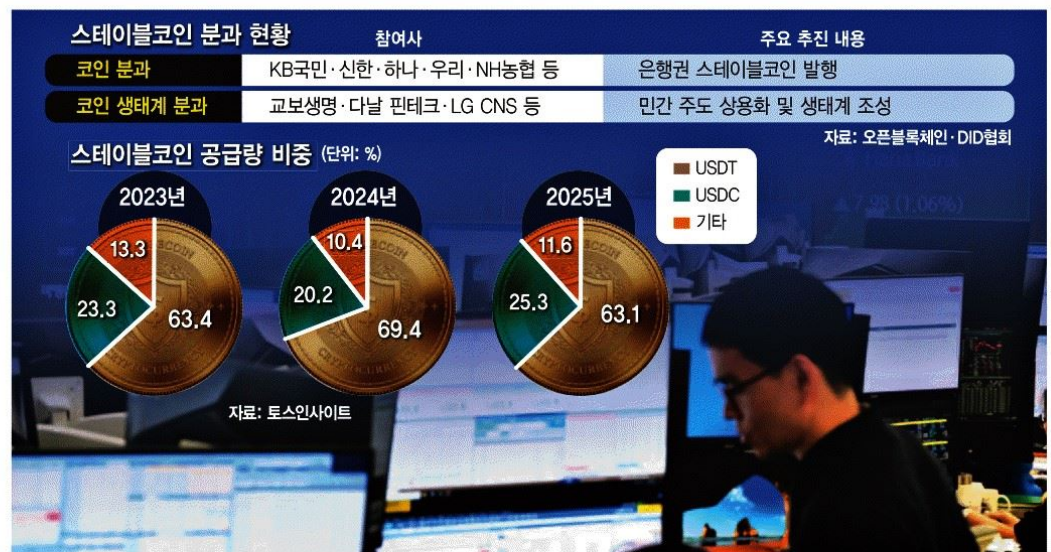
OBDIA, 생태계 분과 별도 신설
회원사 결제원과 협업 방안 논의
농협銀, 뮤직카우와 업무협약 등
은행 차원서도 발행 준비 재검열
민병덕 의원은 “행위규제 집중을”

은행권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분과를 신설하고 관련 기술검증(PoC)에 착수했다. 기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은행 차원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OBDIA는 26일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결제와 유통,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분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새 분과에는 LG CNS·비디젠·소프트제국·아이티센글로벌 등 기존 회원사와 교보생명·다날핀테크 같은 신규 회원사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OBDIA는 “협회는 4월 주요 은행들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은행권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분과를 출범시킨 바 있다”며 “이번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활용성과 민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차원의 분과를 별도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회원사인 블록체인 기술 업체 퍼어스퀘어랩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PoC에 착수했다. 실제 실험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OBDIA에는 BNK경남·BNK부산·IBK기업·iM뱅크·KB국민·케이뱅크·NH농협·SC제일·Sh수협·신한·



우리·토스뱅크·하나은행 등 총 13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참여하고 있다. OBDIA 관계자는 “향후 PoC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사와 함께 다양한 활용 방안과 상호 운용성까지 확장 테스트할 계획”이라며 “회원사인 금융결제원과도 추가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개별은행 차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이날 핀테크 보안 업체인 아톤, 글로벌 음악 저작권 투자플랫폼 뮤직카우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사는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공개(STO)를 연계한 융합 사업 모델 검증에 나선다. K콘텐츠 실물 자산 기반 STO와 결제·정산용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해 자산 유동성 확대와 투명한 거래 인프라를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K팝 팬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 K팝 저작권 STO를 구매

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다. 농협은행의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처를 창출하고 K콘텐츠의 금융상품화·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은행부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차례 언급하면서 은행권의 준비 작업이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현만 토스인사이트 연구위원과 이주환 연구원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인프라로 작동하려면 가치 안정성에 대한 시장 신뢰와 유동성 문제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컨소시엄 또는 신탁 구조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기존 시스템 내 금

융 규제와 감독 도구를 통한 준비금 투명성 확보가 용이하고 여러 금융기관의 자본력을 활용해 초기에 대규모의 유동성 풀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특히 이러한 금융기관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한 발행 구조는 준비금 구성 등에 대한 사전 규제를 통해 통화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세미나에서 “홍콩은 은행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명확한 ‘사용처’가 있는지를 인가의 핵심 기준으로 본다”며 “우리 역시 자본금 규모로 막을 게 아니라 준비금을 잘 유지하는지 감독하는 ‘행위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섭 기자

LG 씽큐 AI, 내달 유럽 론칭...“가전 케어 확장”

업그레이드·고장 예방 지원

LG전자가 유럽 사용자에게 맞춤형 인공지능(AI) 홈 경험을 확산할 ‘LG 씽큐 AI’ 플랫폼을 정식 출시한다.

LG전자는 다음 달부터 유럽에 AI 가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제품을 분석해 고장까지 예방해주는 AI 홈 플랫폼 ‘LG 씽큐 AI’를 공식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씽큐 AI는 그동안 유럽에서 서비스한 LG 씽큐 기능과 서비스를 대폭 확장해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씽큐 AI는 기존 가전에 새로운 AI 기능을 지속 업그레이드하는 ‘씽큐 업’과 고장·이상 징후를 손쉽게 관리하는 ‘씽큐 케어’가 핵심이다.

씽큐 업(국내명 UP가전)은 가전 구매 이후에도 필요 기능을 지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국과 북미에서 상반기 기준 누적 다운



LG 씽큐 AI 플랫폼에서 AI가 실시간으로 고장이나 이상 징후를 분석해 고객에게 미리 안내해주는 씽큐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드 2000만건을 돌파했다.

씽큐 케어는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AI가 실시간으로 고장이나 이상 징후를 분석해 고객에게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다.

LG전자는 국가별 가전 사용 환경과 선호 기능이 다른 만큼 유럽 고객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기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현재 한국, 미국에서 제공 중인 씽큐 AI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유럽을 시작으로 아시아, 중남미 등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美 찾은 LG이노텍 임원진...AI 인재확보 '올인'

해외인재 채용 '이노커넥트' 개최
MIT 박사 등 30여명 초청·만남

LG이노텍이 미래 사업 발굴과 강화를 위해 해외 핵심 인재 확보에 직접 나섰다. 미국 시카고에서 글로벌 인재 채용 행사를 열고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들을 만났다.

LG이노텍은 최근 미국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해외 인재 채용 행사인 '이노 커넥트(Inno Connect)'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는 매사추세츠공대(MIT), UC버클리, 조지아공대 등 미국 주요 14개 대학의 박사 및 경력 인재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노 커넥트는 미국 최고 대학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채용 연계형 행사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올 해가 두 번째다. 이번에는 노승



노승원(왼쪽) LG이노텍 최고기술책임자(CTO·전무) 등 연구개발(R&D) 임직원이 인재 채용 행사 '이노 커넥트'에 참석해 MIT 등 미국 대학 인재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원 최고기술책임자(CTO·전무)와 연구개발(R&D) 주요 임원들이 총출동해 인재들과 직접 소통했다. 올 해는 LG이노텍의 미래 성장 동력과 맞닿아 있는 자율주행, AI, 로보틱스를 연구하는 인재를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

LG이노텍은 스마트폰을 넘어 자율주행, AI, 로보틱스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행사에서 LG이노텍 연구원들은 AI 광학 이미징 시스템, 미래 차량 및 로봇용 센싱 기술 등 차세대 기술 동향과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경영진과 행사 참여 인재들이 회사의 중장기 전략, 기술 로드맵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노 CTO는 "LG이노텍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사들과 핵심 파트너로 일하며 다양한 인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과 육성 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차별적 고객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LG이노텍에서 꿈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LG이노텍은 올 상반기 전체 매출 중 약 95%가 해외에서 발생해 글로벌 인재 확보에 힘쓰고 있다.

LG이노텍은 글로벌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대학의 외국인 및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턴십도 운영 중이다.

서종갑 기자

LG화학, 협력사 안전보건 강화 전폭 지원

랩핑기 등 설비·안전교육 보조

LG화학이 협력사의 작업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LG화학은 26일 협력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협력사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다.

LG화학은 협력사인 케이에스컴퓨레샤, 선우켄텍, 지우텍, 부승화학, 비유에스 주식회사, 태화산업 등에 맞춤형 장비 지원과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동식 랩핑기를 지원받은 부승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의 설비 지원 덕분에 작업 효율이 올라가고 작업 환경이 한층 안전해지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LG화학은 태화산업의 국제방폭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태화산업의 보다 전문적인 기술력을 방폭 설비에도 폭넓게 적용하고 고객사의 신뢰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윤주 LG화학 지속가능전략책임자(CSSO)는 “협력사와 당사의 안전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며 “상생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사와의 환경안전 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park27@

LG유플러스, AI로 IPTV 고장 사전 차단

IPTV에 품질예측 AI기술 도입
로그 데이터 분석해 문제 포착
고객 인지 전 재부팅·원격조치
시범적용시 불만콜 10%로 줄어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품질 예측 시스템을 앞세워 고객불만 제로에 도전한다. 이 시스템은 AI가 고객보다 먼저 IPTV 서비스 이상 여부를 탐지하고 자동 대응한다. 이를 통해 고객 불만콜을 10% 이상 낮추고 문제 해결 리소스를 대폭 줄인다. 내년에는 모든 IPTV 고객으로 확대 적용하고 향후 인간 개입 없는 AI 기반 '안전자율 관리체계'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개발한 'AI 기반 불편 예측 및 선제조치 시스템'을 공개했다. IPTV나 공유기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로그 데이터를 AI가 수집,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고 선제 조치하는 기능을 갖췄다.

강봉수 LG유플러스 품질혁신센터장은 "AI 예측 시스템은 고객 불편이 불만으로 번지기 전 미리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이를 독자기술로



강봉수 LG유플러스 품질혁신센터장이 26일 서울 중구 LG서울역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반 고객 불편 예측 및 선제 조치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구축한 것은 통신사 최초며 관련 특허도 출원했다"고 밝혔다.

품질 예측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부터 AI 학습, 이상 탐지·조치 등 3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매일 IPTV·공유기(AP)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선별한 뒤 AI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공해 사내 데이터 허브에 저장한다. 이를 딥러닝 기반 트랜스포머(시계열 데이터 처리 기술) AI 모델로 정밀 분석한다. 방송 화질 저하 문제

가 있다면 AI가 자체 진단해 재부팅·원격조치 등을 수행한다.

강 센터장은 "IPTV 고객당 하루에 만 4만개의 로그가 쌓인다. 고객 전체로 보면 하루 1조개가 넘는다"면서 "이를 수작업으로 분석하는데 7만시간이 걸렸다면 AI는 단 6시간만에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시범 적용 결과 고객 불만콜이 약 10% 줄었고 고객 불만 예측 정확도는 약 30%로 나타났다. 또 원인분석에

서 문제해결까지 기존 최대 사흘이 걸렸던 것도 즉시 대응이 가능해졌다.

LG유플러스는 우선 UHD4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약 90만명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적용한 뒤, 내년 중 구형 단말을 제외한 400만명가량의 전체 IPTV 고객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번 AI 품질 예측 모델을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동통신 기지국 셀의 통신 품질 최적화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이번에 개발한 AI 품질 예측 시스템이 단순히 투자수익률(ROI)를 넘어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비용 투자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출동이나 상담에 들어가는 리소스를 줄이는 것 외에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해 고객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강 센터장은 "고객 인지후 사후조치 방식에서 고객 인지전 사전조치 방식으로 진화한 것을 넘어 2027년에는 모든 과정에 인간 개입 없이 AI가 처리하는 완전 자율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